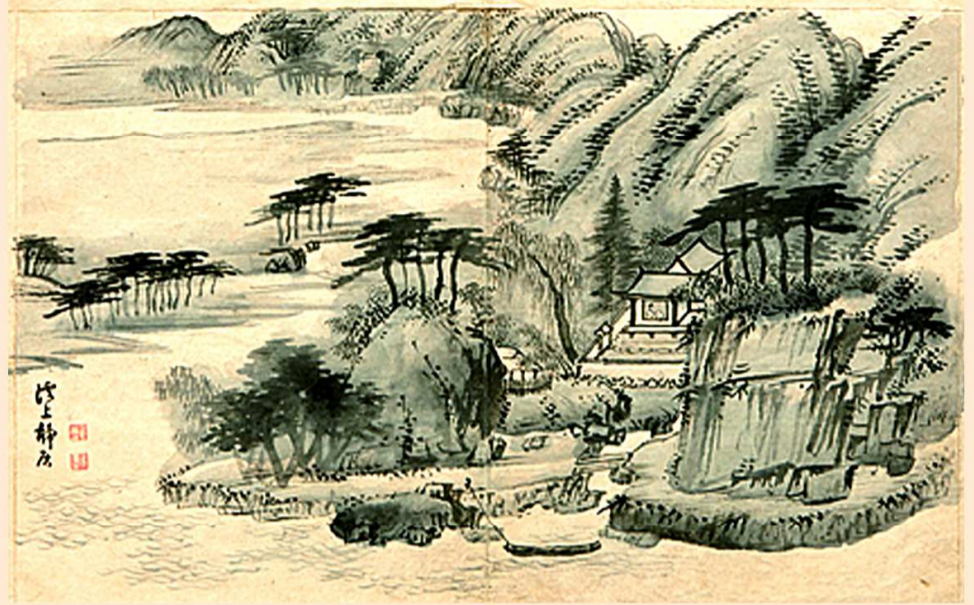


35. 주자서절요 편찬(56세)

계상정거도(겸재) :
퇴계가 도산서원이
완성되기 전 계상서당에서
주자서절요를 집필하고
있는 모습



계묘년(1543년)에 임금(중종)이 명하였다.

주자전서를 출판하여
반포하라!

주자전서라니
그런 책이 있었나?

퇴계는 비로소 그러한 책이 있음을 알고
어렵게 구했다.

됐어. 올 여름 피서
준비는 이것으로 끝!

독서 중에 방해 안받도록
일단 문을 닫아 걸고...

정좌하여 책을 보기를....



여름 내내 하였다는 것 아닌가.



???

하하하!



삼복 더위에 정장을 하고 문 닫고 무슨 짓인가? 그러다 더위 먹으면 몸 상하네.

난들 왜 안덜겠는가마는 이 책을 읽노라면 문득 가슴 속에 서늘한 기운이 일어나 더위를 못 느끼니 어찌 병이 생기겠는가?

맙소사, 그게 말이 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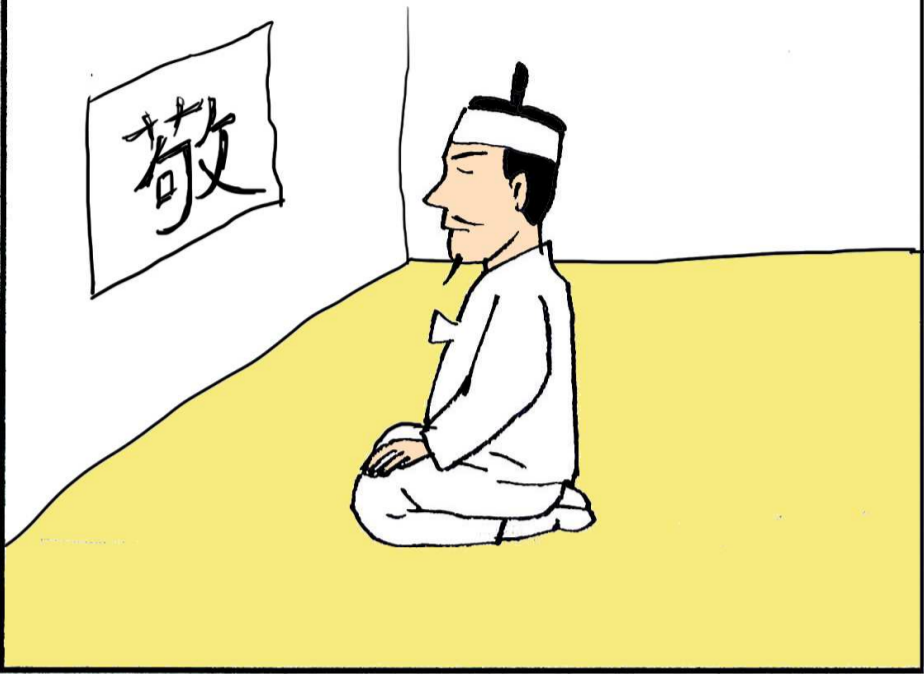


졌네졌어. 자네의 독서벽은 나랏님도 못말려!



난 독서가 피서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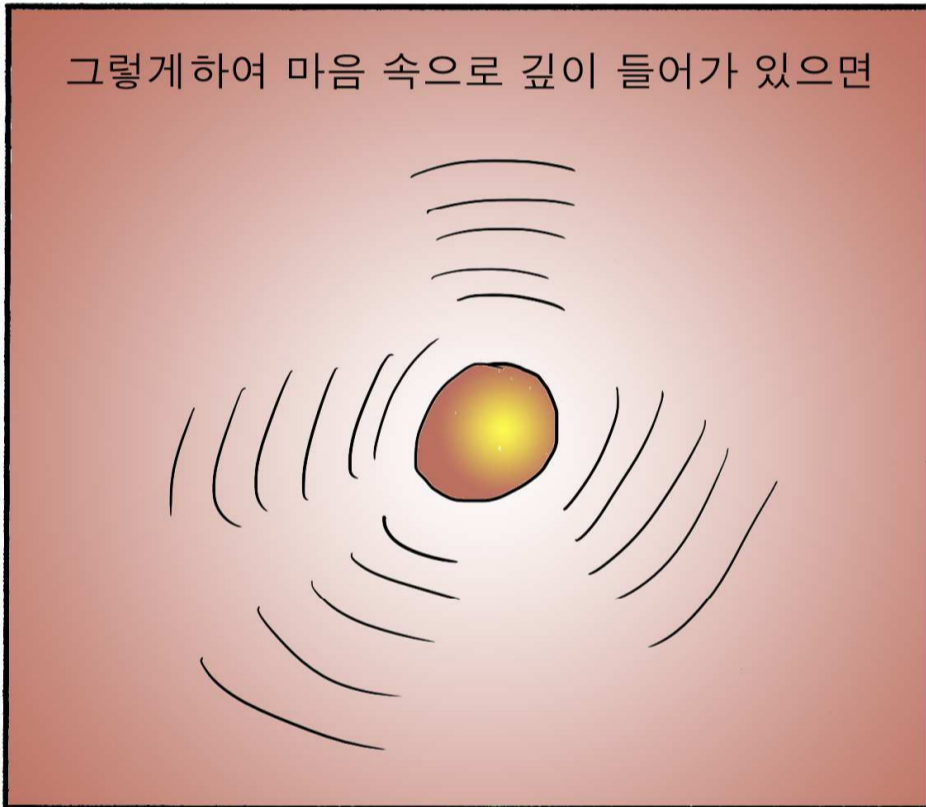
퇴계는 이때 주자전서를 읽으며 경 수행을 병행했는데



꿇어 앉아서는 일념으로 한 생각에 집중하기를 하루종일 하였다한다.



그렇게하여 마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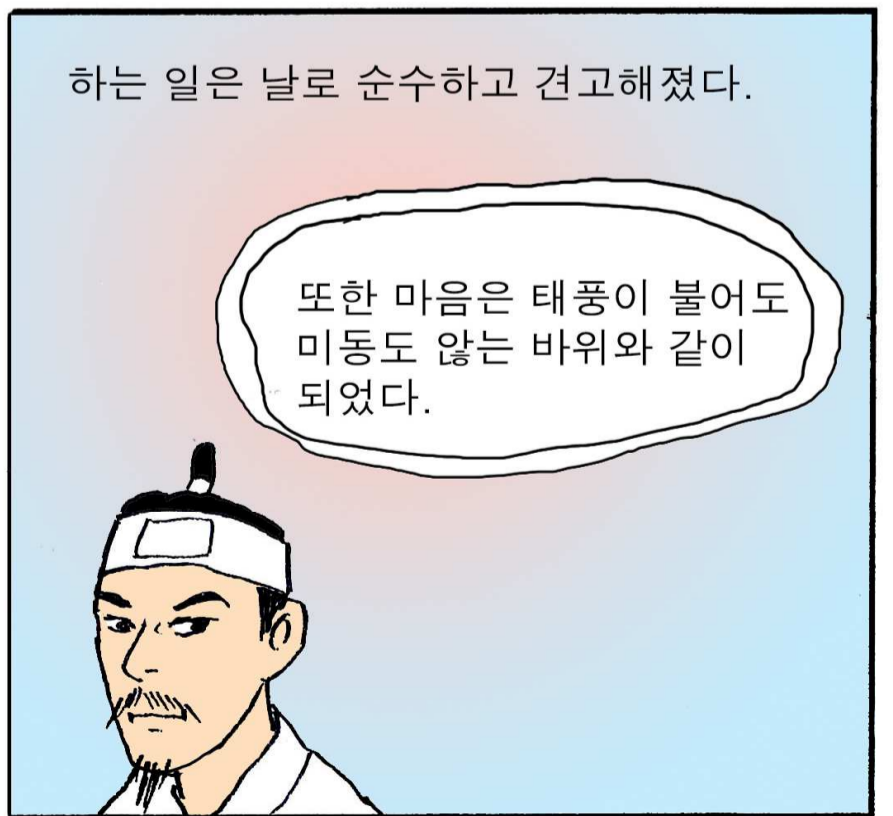
주자의 세계와 바로 만나서 그와 마주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생각은 날로
정밀하고
밝아졌으며



하는 일은 날로 순수하고 견고해졌다.



또한 마음은 태풍이 불어도 미동도 않는 바위와 같이 되었다.



이 무더위에
퇴계는 무슨
공부를 하길래..

사람이 나날이
달라져 갈까.

나이 들면서 오로지 학문을 닦고
연마하는데에만 힘썼는데



독서삼매경에 빠지면 더운지
추운지를 못느끼지....



책을 읽으며 갈고 닦기를 여러 해 동안이나
하였다.



때로는 침식을 잊을 정도였으니

진지
잡수시고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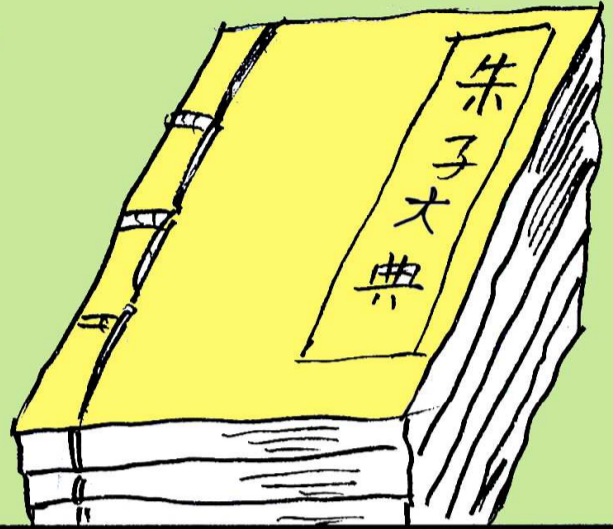


그리하여 어느 날 홀연히 깨우쳤다 한다.

이후 하는 일마다 막힘없이 행하게 되니

도를 공부함은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데 있다.

평생의 큰 힘을 얻은 것이 이 책에 의함이 컸다.



훗날 신흠·이정구·장유와 함께 사대 문장가로 꼽히는 택당 이식이 말하길...

퇴계는 주자의 언행을 마음 속에 무르녹여서 마치 자신이 한 말인 것처럼 하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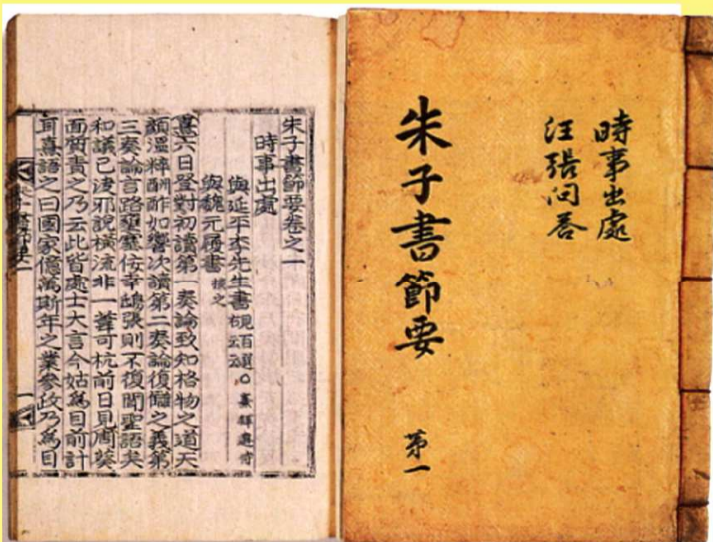


퇴계는 방대한 내용의 주자대전을 섭렵한 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게 만들어 널리 읽혀 잘 살게 하는 것이 내 일이라...



중국이 아닌 조선에서 필요한 내용만을 축약해 요약본을 만드니 “주자서절요”이다.



이책은 너무나도 유명하여 훗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여러 차례 판각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지요.

